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Kyung-Chik Han 한경직

1902-2000

Hee Chang Kang

Abstract

Rev. Kyung-Chik Han was a pulpit-giant in the Korean Church. Having been in US for his education, he used a lot of information from various resources. His preaching was always based on the context of congregation. His preaching was so totally pastoral that he focused on filling the spiritual hunger of people. He was devoted to make disciples of God. In addition, his preaching emphasizes patriotism. Living as a true Christian should be connected with loving one's country.

His position about worship is also strongly connected with the context of actual life. His worship theology is "liturgy-after-liturgy". To him, worship and life is never separated. He tried to overcome dualism between sacred and secular. To him, true worship, in addition, leads to finding God's calling and obedience to God.

However, he had kep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the church and government. So, his preaching was not prophetic. He said nothing about the military regime. Since he had huge influence upon the whole Korean society beyond the church, his position about political issues and reality made the Korean church keep silence during the dark period.

들어가는 말

100 년을 조금 넘긴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경직 목사는 1945 년 해방 이후부터 2000 년 소천까지,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 존경 받는 종교 지도자로, 불교에는 성철 스님이 있었고, 천주교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다면, 개신교에는 한경직 목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로서의 그의 삶은 "영원한 청교도," "한국 교회의 영원한 목자상," "고아들의 아버지," "복음화의 선구자," "참 복음주의의 실천자," "강단의 거성" 등과 같은 별칭들로 묘사되고 있다. 한경직 목사는 설교자로 한평생을 바쳤고, 그가 설교한 대로 살았고, 그가 설교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간단하게, 한경직 목사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나서, 그의 설교를 분석하고, 그의 설교를 바탕으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입장들이 어떠했는지 다루고자 한다.

설교자 한경직의 생애와 사역

한경직은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에서 1902년 12월 29일에 태어났다. 그가 출생하기 약 7년 전, 사무엘 마펏(Samuel A. Moffett) 선교사 일행이 원산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길을 잘못 들어 하룻밤을 한 동네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이 바로 한경직의 고향이었다. 이로 인해, 한경직은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였고, 방위량(William N. Blair) 선교사가 세운 소학교를 졸업하고, 오산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애국자들이었던 이승훈과 교장이었던 조만식 선생을 만났고, 이를 계기로, 청년 한경직은 민족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방위량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캔사스의 엠포리아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1931년 귀국하여, 신의주 제 2 장로교회를 섬겼다. 해방 후에는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1945년 10월에 월남하였고, 1945년 12월 2일, 피난민 27명과 함께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의 전신인 베다니 전도 교회를 창립하였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1950년 5월에 새 성전을 준공하지만, 입당예배를 드린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결국 피난길에 오른다. 피난간 영락교회 교인들은 부산, 대구, 제주도에 가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지역 영락교회가 시작되었다. 한경직은 부산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지역에 생긴 영락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설교와 목양 사역을 계속했다.

한국 전쟁 후에는,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전도집회를 기획하였다. 특히 밥 피얼스(Bob Pierls)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을 초청한 전도집회 등을 주도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 교회 전체가 큰 수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선명회(World Vision)를 창립하여, 전쟁, 재난, 기아에 시달리는 인류에 공헌 하였고, 군 선교, 산업선교, 구치소 선교, 방송 전도, 외향 선교 등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경직은 1973년 1월 2일, 71세에 영락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된다. 90세가 되던 1992년에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 4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경직의 설교세계

A. 한경직 설교의 특징

1.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 설교

한경직의 설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교자료는 아주 다양했다. 그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관련된 다른 성경 본문을 끌어와 예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철학, 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전기, 역사적인 사건, 동서고금의 고전들, 그리고 타임(Time)과 뉴스위크 (Newsweek), 당시의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은 자료들의 그의 설교에 사용되었다. 또한 세계 곳곳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체험담, 일상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생생한 예화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것들을 설교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은 기술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제한적인 것들만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었다. 한경직은 폭넓은 학문적인 연구와 세계를 경험한 목회자였고, 폭넓은 독서를 했던 설교자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목양적 설교

한경직의 설교는 철저하게 목양적인 설교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선 회중”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회중과 연관성을 잃지 않는 설교를 추구하였고, 설교의 실존성을 강조하였다.¹ 한경직의 설교는 본문(text)과 오늘의 상황(context)을 함께 지향했다. 그의 이러한 철학 때문에, 한경직의 설교 주제는 주로 신앙 생활 혹은 성도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믿음, 하나님 사랑,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온유, 인내, 기쁨, 사랑, 헌신 등의 주제가 그것들이다. 그의 설교는 민족의 아픔과 역사적 혼란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와 적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경직의 설교는 세상과 동떨어진, 그저 신앙생활과 구원만을 강조하는 내세 지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오늘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¹ 김운용, "강단의 거성 한경직의 설교 세계," 『장신논단』 제 18 집 (서울: 장신대학교 출판부, 2002), 514

그래서 한경직의 신학을 청교도적인 삶의 신학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서, 청교도적인 삶을 산다함은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회개하고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성결한 생활, 성실한 생활, 근면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² 이것은 교회 창립 때부터 시작된 것이며, 청교도적인 생활 훈련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3. 복음적 설교

한경직의 설교는 예수가 중심을 이루는 복음적인 설교이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민족의 살길 또한 예수에게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그는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의 신학은 성서 중심의 복음주의이며, 이것은 곧 “성경 중심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신앙을 의미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Logos)를 통해서 성육신 되었고, 설교(logos)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화 된다. 그러므로 한경직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이며,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이 바로 설교의 능력이다.

4. 나라 사랑 설교

한경직의 설교는 나라 사랑의 설교였다. 한경직이 오산학교에서 민족 지도자 이승훈과 조만식 선생을 만난 것은 그의 평생의 삶과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목회 초기부터 평생동안, 기독교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소망이란 확신을 가졌다. 민족의 고난과 재건의 시기에, 그의 설교는 한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메시지였다. 한경직의 설교에서, 나라 사랑의 강조점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경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단지 개개인이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경직의 신학은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회 참여 및 봉사에 대한 신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 모델로 삼고 있다.

² 한승홍, "한경직 목사의 영성과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장신논단』 제 17 집 (서울: 장신대학교 출판부, 2001), 560.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린 자를 먹이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본을 따라, 전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를 섬기는 일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새롭게 시작한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들은 그의 이러한 신학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삶과 신학과 설교는 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일치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B. 한경직 설교의 한계

그의 사회 참여에는 분명한 국가와의 관계 정립을 요청 한다. 교회가 국가에, 혹은 국가가 교회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교회와 국가간의 가장 올바른 관계는 철저한 불간섭주의라고 주장한다.

오늘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철저한 반공정신과 국력배양으로 복귀의 재 침략을 막아야 하며 우리 사회를 쪼먹는 부정부패와 온갖 부조리를 일소해야 하며 경제 발전에 따르는 한 폐단이 빈부의 격차 혹은 현격을 막아 온 국민이 같은 혜택을 입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참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교회로서 정치에 직접 간여할 수 없고 국가로서 또한 교회 내정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³

한경직은 1970년대, 1980년대 기독교의 분명한 목소리를 나타나야 할 때 "침묵하는 목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교회 청년들도 그에게 시대의 양심이며, 민족의 사표로서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선지자적인 음성을 토해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는 동시에 또 한 칼 같은 예리한 혀와 용기를 가진 선지자가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국가관이나 정치관은 "무엇보다도 나라가 있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는 애국관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었다. 1984년 여름, 그는 한 잡지사 기자와의 대담에서 그의 이러한 철학을 분명히 피력하였다.

³ 한경직, "올바른 신앙노선,"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2, p. 421f.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예요. 교회와 정치와는 분리되어야지요.
교회는 정치 잘할 사람을 배양하는 것이지, 정치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되지요. 또한 정치의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지요. 교회는 그 자체의
영적 방향에 치중해서 어느 일터에서고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배출해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요.⁴*

이러한 정치관과 국가관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특별히 공산주의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두고 홀로 남하해야 했던 실향민들이 영락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침묵이 한국 교회사에 끼친 영향이다. 그의 한마디 말과 행동, 사고 하나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때였을 감안하다면, 그의 이러한 신념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의 침묵은 결국, 냉전주의적 사고와 반공주의적인 논리,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조국의 근대화를 쟁취해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동의하는 것에 다름 없는 것이었다. 한경직의 설교에서 예언적인 특성이 약한 것은 그의 애국관과 정치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의 그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결국 한경직의 설교의 약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경직의 예배 이해

한경직 목사가 한국 교회에 어떤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도입했거나 혹은 특별한 예배를 고안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몇편의 설교를 통해, 한경직 목사의 예배에 관한 신학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한경직 목사는 “예배와 삶의 분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 되기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배 후의 예배”의 삶이 결국엔 애국하는 길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그의 강조는 예배를 주제로 한 설교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1966 년 5 월, “엘리야의 제단”이란 설교에서, 그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불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일 낮, 저녁, 삼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애국심을

⁴ “中道を 걷는 牧會”(한경직 목사와의 대화), 『기독교사상』 제 313 호(1984. 7), p. 97.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단에 내려진 불로 삼천리를 밝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였다.⁵

1966년 9월, “거룩한 산 제사”라는 설교에서도, 예배는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음을 강조하고, 모이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였다.⁶ 그에게 있어서, 성과 속,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62년 5월 “신령과 진리의 예배” 설교에서도, 한경직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에 사명을 깨닫게 한다고 하였다.⁷ 1964년 6월 “이사야의 예배”라는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애국 청년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교 하였다.⁸

이처럼, 한경직의 예배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삶의 현장을 염두해 둔 것이었고, 특별히 민족과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경직의 설교와 삶 전체가 언제나 말씀과 상황을 염두해 두었던 것처럼, 그의 예배 이해 역시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가는 글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 100년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요 설교자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의 설교와 사역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목회자로서 그의 평생의 삶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 교회 세습과 물질주의에 물든 한국 교회를 향해, 그의 삶은 교회가 참된 교회로, 목사는 참된 목자로 돌아가야 할 것을 외치고 있는 듯 하다. 참으로 그의 삶 전체는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20년대 미국 유학을 경험했던 한경직은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독서에서 비롯된 다양한 자료들로 가득하다. 그의 설교는 그가 얼마나 현장에 맞닿아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그의 설교는 철저히 목양적인 설교로, 성도들의 영적 필요는 물론이고,

⁵ 한경직, “엘리아의 제단,”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9, p. 154.

⁶ 한경직, “거룩한 산 제사,”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9, p. 242.

⁷ 한경직, “신령과 진리의 예배,”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6, p. 22.

⁸ 한경직, “신령과 진리의 예배,”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7, p. 398.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데 헌신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은 곧 애국하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임을 늘 강조하였다.

그의 예배에 대한 입장 역시, 교회 내에서의 예배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를 강조하는, 즉 “예배 후의 예배”의 삶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경직에게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예배에 대한 철학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구분이 없는,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했던 그의 소신이 반영된 설교는 다소 예언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경직은 교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분리주의적 입장은 한국 교회가 정치적 암흑의 시대에 침묵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Primary Resources:

한경직, 『한경직 목사 설교 전집』 1-12 권, 서울: 한경직 목사 기념 사업회, 2009.

Secondary Resources:

김운용, "강단의 거성 한경직의 설교 세계," 『장신논단』 제 18 집, 서울: 장신대학교 출판부, 2002.

한승홍, "한경직 목사의 영성과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장신논단』 제 17 집, 서울: 장신대학교 출판부, 2001.

_____, 『한경직의 생애와 사상』. 서울: 장신대 출판부, 1993.

“中道를 걷는 牧會”(한경직 목사와의 대화), 『기독교사상』 제 313 호, 서울: 1984.

『한경직 목사의 신앙유산: 한경직 목사 기념강좌 모음』.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7.

『한국교회와 한경직 목사: 1 주기 추모자료집』 서울: 한경직 목사 기념 사업회, 2002.

『한경직목사: 내일을 위한 20 세기의 목회자- 탄신 100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서울 영락교회, 2002 년.